

농장생산 계란, 마트 직행 못한다

식약처, 의무적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 통해 선별·포장해야

앞으로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을 통해 선별·포장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앞으로 농장에서 달걀을 가정

용으로 유통·판매하려면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을 통해야 한다.

그동안 농장에서 달걀이 생산되면 마트 등으로 곧바로 판매가 됐으나 앞으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쳐 마트로 가게 된다.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한 대책으로 '식용란선별

포장업'이라는 중간단계가 포함됐다.

다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경우 예외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

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용가리치킨 크리스마스 세트' 출시

하림, 12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판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용가리치킨 크리스마스 세트'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하림은 어린이들의 영양간식 '용가리치킨'과 용가리 캐릭터 고깔모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구성된 '용가리치킨 크리스마스 세트'를 비롯해, 하림 공식 소풍물 '하림물' (www.harinmall.com)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굵거나 튀기기만 하면 되는 용가리치킨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캐릭터 모양의 고깔모자와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들어 있어 아이들과 간편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출할 수 있다.

하림 용가리치킨은 1999년에 출시된 이후 20년 가까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장수 브랜드다.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클로렐라 추출물(CGF)

과 DHA, EPA,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다. 합성첨가물을 줄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또한 티라노사우루스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섯 가지 공룡 모양으로 만들어 먹는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하림 육가공 박준호 본부장은 "올 한해 하림 용가리 브랜드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아이들과 손쉽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특별세트를 기획했다"며, "유튜브(www.youtube.com)를 통해 3D 애니메이션 '용가리 대모험'을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아이 LOVE 하림' 결연후원을 통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영림 기자

농협 익산시지부-농협 대전공판장, 양해각서 체결

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오석원)는 지난 24일 농협경제지주 대전공판장(사장 박진혁)과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및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대전공판장은 적극적인 가격지지와 안정적인 물량 유치로 중도매인과 함께 분산처 및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익산시지부는 경쟁력 있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대전공판장에 출하하여 상호간의 사업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상생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정가수의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가격, 물량과 시기를 협상하여 결정하는 제도로 도매시장 법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격,물량,시기를 중재하여 농산물의 출하와 소비자의 농산



물 구매를 원활하게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오석원 지부장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익산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항상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영림 기자

전북농협, '김제·부안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 성료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경기도 고양우동센터에서 '김제·부안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김장철을 맞아 전북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 '예담채' 홍보를 비롯한 김제·부안 우수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부안군의 배추, 천수무와 김제시의 고구마, 토마토를 필두로 김제·부안에서 출하되는 10여개 품목이 참여했다.

또 토마토 및 양파 50% 특별할인행사, 배, 고구마 시식행사, 부안 계화농협 협쌀 및 공덕농협 고구마 말랭이 사은품 증정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제·부안 지역 구의원인 김중희 의원을 비롯해 전북

농협 김태도 본부장, 김제·부안 관내 농협 조합장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관측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농산물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수년간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통합 판매행사를 실시해 왔다.

앞서 지난 4월은 서울 창동우동센터, 5월은 성남우동센터, 이달 초에는 수원우동센터에서 행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

전북농협 김태도 본부장은 "소량 다 품목 구조인 전북 농산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매일 통합관측행사를 실시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가계 대출금리 3.5% ↑ ... 2년9개월만 최고치 기록

10월 은행 가계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과 집단대출 등 모든 대출금리가 뒀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50%로 전월(3.41%)보다 0.09%p 상승했다. 지난 8월부터 두달째 상승하며 지난 2015년 1월(3.59%)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것은 대출금리 산정시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은행채 AAA(3년물) 금리는 지난 9월 1.99%에서 지난달 2.24%로 0.25%p 상승했다.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2.22%에서 2.48%로 0.26%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8%p 뛰어오른 연 3.32%로 지난 2015년 1월(3.3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집단대출 금리도 3.38%로 전

월보다 0.24%p 상승했다. 상승폭 기준으로 지난 2013년 1월(0.36%p) 이후 4년10개월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저금리의 중도금 대출 취급 효과가 추축해진다. 지방권의 고금리 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은행권에 저금리 경향이 불붙으며 지난 8월 사상 첫 3%대로 떨어진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달 4.22%를 기록하며 두달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일부 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늘면서 금리가 전월보다 0.13%p 상승했다. 예·적금담보대출 금리와 보증대출 금리도 각각 2.99%와 3.39%로 모두 전월보다 0.07%p, 0.08%p씩 올라갔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 변동대출 금리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72.7%로 전월보다 2.7%p 높아졌다. 1년 전(54.3%)보다는 18.4%p 많아진 것이다. 고정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산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가계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공공임대 주택 100만호 공급

당정,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등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이 기본방향이다.

당정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전달요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30만호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임대주택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세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하기로 했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